

오늘 3차 등교개학... 고교 첫 '순환 등교'

초3~4·중2·고1 학생 2만6033명 학교로 과대 학교 8개 고교 2학년은 집에서 수업

오늘(3일)부터 '3차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순환 등교가 진행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3일 초 3~4, 중2, 고1 학생 2만 6033명이 학교로 등교한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만3538명, 중학생 6322명, 고등학생 6173명이다.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 중3, 초1~2, 유치원에 이어 3차 등교 개학이 실시되면서 당초 계획됐던 '순환 등교'도 시행된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과대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격주 등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중3과 돌봄 수요가 높은 초1~2 학생은 순환 등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수 900명 이상(제주시 12개교, 서귀포시 3개교), 중학교 700명 이상(제주시 9개교), 고등학교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8개교)다. 과밀학급인 경우 교실 내 사물함을 이용해 교실 공간

최대한 확보, 일반교실보다 면적이 넓은 특별실 활용, 미러링·교차 수업을 포함한 학급내 분반 수업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



고등학교 1학년들의 첫 등교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책상에 방역용품을 놓고 있다.

해 결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3일은 고등학교 8개교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초등 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오는 8일 중1·초5~6학년이 등교해야 모든 학년이 학교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격주 등교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6월에서야 처음으로 학교를 찾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생략하거나 소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8일 마지막으로 등교하는 중1·초5~6 학생들의 수는 1만 9792명(초등학교 1만2901명·중학교 689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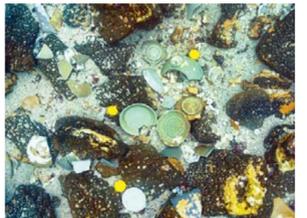
송은범기자



2일 제주도 한림읍 신창리 앞바다에 정박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사선 누리안호 선상에서 신창리 수중유적 2차 발굴조사 개수제가 열리고 있다.

신창리 수중유적 2차 조사 착수

문화재청·국립제주박물관 작년 1차 조사엔 남송시대 도자기 437점·인장 등 발견 2차 조사는 선박 잔해 집중



지난해 1차 수중조사때 발견된 남송시대 도자기들. 사진=국립제주박물관 제공

제주시 한림읍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2차 공동 수중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2일 개수제(開水祭) 행사를 시작으로 신창리 수중유적에 대한 제2차 발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3월 해녀가 조업 중 발견한 금제장신구를 신고하면서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해 4월, 당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해 금제장신구 2점을 추가로 발견했고 1997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도 이 해역을 추가 조사해 중국 남송시대 도자기(청자)를 확인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후 2018년 9월 신창리 해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통해 남송대 도자기가 분포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했다. 2019년에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1차 공동 조사를 실시해 남송시대 도자기 437점과 인장 2점, 인장함 1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창리 해역에서 확인된 유물은 대부분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중국 저장성(浙江省) 룡취안요(龍泉窯)에서 생산된 청자들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이 다량 확인된 만큼 과거 바닷길을 오가던 국제무

역선이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차 수중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인장 한 점은 인면(印面)에 '삼가 불한다'는 의미의 '謹封(근봉)'이라는 명문과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당시 해상교역 활동의 일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번 2차 수중발굴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창리 해역 유물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도 확보하면서 도자기를 신고 있던 선박의 잔해를 찾는 작업들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어졌는데 조사선 누리안호에 승선하는 승무원, 조사원 등 전원이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사전에 시행하고 출항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제주도의 수중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과거 제주 해역에서 발견·신고됐거나 해녀들에 의해 구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중지표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군포시 제주단체여행객 접촉자 2일 기준 161명

제주 여행 후 경기도 군포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일행과 관련해 제주지역 접촉자가 2명 더 늘었다.

이로써 A씨 일행이 제주여행 중 밀집 접촉이 이뤄진 접촉자 수는 2일 기준 총 161명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추가 접촉자 2명은 지난달 27일 A씨 일행과 항공편이 같은 김포행 항공기(진에어 LJ312편) 탑승객으로 확인됐다.

추가 접촉자 2명은 군포시에서 항공기 탑승객 명단을 확보해 관찰 보건소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관됐다.

추가된 2명을 비롯해 접촉자 161명 전원은 모두 자가격리중이다. 이중 제주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사람은 총 67명이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외국인 2만명시대... '무용지물' 재난문자

정부·도, 코로나19 문자 전송... 외국인 '한글로만 써있어 낭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코비드-19의 얼어붙고 터지는 속도를 느리게! 음식을 개인 접시에 저장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기 위해 티켓 연습하자."

뉴질랜드 출신 외국인 A씨(제주시 이도2동)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재난 문자를 받았다. 한글 독해가 서투른 A씨는 문자 내용을 복사해 번역기에 돌려보려 했지만 복사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스마트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에 문자 내용을 영어로 어렵게 해석해 옮겨 적었더니 이같은 어색한 내용이 나왔다.

정부와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확진자 발생 현황, 예방수칙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지만, 외국어로는 지원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전하

는 안전안내문자 뿐 아니라 폭설, 지진 등 재난상황·기상특보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역시 한글로만 발송되며 위기상황 시 외국인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민은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를 수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을 소지한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수신된다. 또 제주도는 신청자 11만5000명에게 자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글로 수신되고 있는 재난 문자는 LG전자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복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삼성이나 애플의 휴대전화를 쓰지만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은 재난 문자가 와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

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외국인 전용 재난정보 안내 앱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가 출시돼 있지만 영어·중국어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해당 앱을 다운 받아야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앱을 다운받은 수는 1만여건에 불과하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200만명이 넘고 제주도내 외국인 인구가 4월 말 기준 2만4924명임을 고려할 때 턱없이 적은 숫자다.

중국 출신 외국인 B씨(제주시 에월읍)는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난 문자인데, 외국인들도 주소지가 제주도인 도민인데 문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소외감과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전용 재난정보 안내 앱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주택용 태양광이 없는 우리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우리집 한달 전기요금만 104,140원

30년이면 104,140원 × 12달 × 30년 = 37,490,400원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한 옆집에서 한달에 전기를 500kWh 만큼 쓰면

옆집 한달 전기요금만 17,690원

30년이면 17,690원 × 12달 × 30년 = 6,368,400원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결과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